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승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103위 성인

성녀 권진이 아가타 (1820-1840)

서울에서 태어난 권진이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어머니 한영이와 함께 입교하였다. 그리고 13세경 혼인하였으나, 가난 때문에 남편의 친척인 정하상(丁夏祥)의 집에 얹혀살게 되었다. 그는 1833년 조선에 온 중국인 신부 유방제(劉方濟)의 시종을 드는 일을 맡아 하다가 유신부가 조선을 떠난 후에는 어머니에게 돌아갔다.

기해박해가 한창이던 1839년 7월 17일, 권진이는 같이 살던 한영이, 이경이와 함께 체포되었다. 이후 옥살이 중 도망쳤던 죄로 더욱 가혹한 형벌을 받았으나 배교하지 않았다. 그리고 1840년 1월 31일, 5명의 교우와 함께 당고개에서 참수형을 받아 순교했다. 그때 그의 나이 21세였다.

성화_한혜자 작,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 청소년 주일

소리 주보 ▶



입당송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찬미받으소서.

제1독서

신명 4,32-34,39-40

화답송

시편 33(32),4-5,6과 9,18-19,20과 22(◎ 12L 참조)

◎ 행복하여라, 주님이 당신 소유로 뽑으신 백성!

○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 하네. ◎

○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여시고, 당신 입김으로 천상 만군 만드셨네. 그분이 말씀하시자 이루어지고, 그분이 명령하시자 생겨났네. ◎

○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네. ◎

○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

제2독서

로마 8,14-17

복음 환호송

묵시 1,8 참조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

복음

마태 28,16-20

영성체송

갈라 4,6 참조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

어린 시절 소명을 받은 사무엘과 예레미야



사무엘의 무덤에서 바라본 베냐민 영토

매년 청소년 주일이 돌아올 때마다 떠올리게 되는 성경 속 인물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과 예레미야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시절부터 실로(Shiloh) 성소에 맡겨져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오랜 불임 끝에 서원하며 ‘아이를 얻으면 주님께 바치겠다.’고 맹세하였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 때까지 기다렸다가 “삼 년 된 황소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파와 포도주를 채운 가죽 부대 하나”(1사무 1,24)를 사무엘과 함께 성소에 바칩니다. 이사악이 젖을 떼었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열었듯이(창세 21,8) 말입니다. 2마카 7,27 등에 따르면, 당시 수유 기간은 3년 정도였던 듯합니다. 그래서 세 살쯤 된 어린 사무엘이 성소에서 자라는 모습은 성전에 홀로 남은 어린 예수님이 ‘자신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 루카 2,49을 생각나게 합니다. 당시 실로 성소에서 어린 사무엘을 키우고 교육한 이는 그곳 사제로 봉직한 엘리입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후계자가 되어 훗날 이스라엘의 마지막 판관이자 예언자 그리고 사제로서 백성을 이끌게 됩니다.

한편, 예레미야는 사제 집안 출신(예레 1,1) 예언자입니다. 예레 1,6에 따르면, 그 역시 어린 나이에 예언 소명을 받은 듯합니다: “하느님 저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예언자로 세워지자 환시를 분간해내어 예언자의 자질을 당당히 증명합니다. 바로 11-12절의 ‘편도나무 환시’와 13-14절의 ‘끓는 냄비 환시’를 보고, 잎보다 꽃이 먼저 피는 성질 급한 편도(아몬드) 나무처럼, 그리고 부글

부글하는 냄비처럼 주님의 계약을 저버린 유다 왕국에 징벌이 빠르게 다가오리라고 예고한 것입니다.

사무엘과 예레미야, 이 둘은 모태에서부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점(예레 1,5) 외에도 레위인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사무엘은 1사무 1,1에서 레위인이 아닌 에프라임인처럼 소개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단 1역대 6장에서는 사무엘의 족보를 레위 집안으로 소개하며 사무엘의 후손이 다윗 시대 성소에서 직무를 맡은 것으로 나옵니다(18-19절). 그렇다면, 판관 17,7에 나오는 레위인을 “유다 씨족의 한 젊은이” 곧 유다 지파의 영토에서 사는 레위인으로 묘사하였듯이, 사무엘도 에프라임 땅에 살았던 레위인 집안에 속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당시는 왕조가 세워지기 전이라 레위인이 주관하는 정식 경신례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에 사무엘이 사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성조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한 집안의 가장인 동시에 사제 역할까지 하였듯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정이 세워지고 공적 경신례의 중요성이 커진 뒤에 비로소 특정인들이 사제직에 임명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소명을 받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나 이스라엘을 이끈 사무엘과 예레미야는 오늘날 하느님의 은총 속에 성장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어 줍니다. 🍀

「모든 형제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화 사명 이행 - 평화 증진과 세계 공동체 건설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태 28,20)하려는 프란치스코의 「모든 형제들」

사회 현안을 보기, 복음과 전승,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빛과 누룩으로 행동하기

제3장 열린 세계를 구상(構想)하고 싹트게 하기

회칙 「모든 형제들」의 “제1장 폐쇄된 세계 위에 드리운 암운들”(사회 현안)과 “제2장 길 위의 낮선 이”(복음과 전승)를 관통하는 주제는 ‘인간과 인간관계에 관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1장은 그 왜곡과 일탈이 불러온 폐쇄된 세계의 증세를 ‘암운’으로 설명합니다. 한편, 제2장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그 암운을 뚫고 나오는 빛을 찾음으로써 열린 세계로 나아갈 길을 찾습니다. 또한 제2장은 열린 세계에 관한 교회의 확신을 언제나 살아있게 하는 샘물이 됩니다.

물론 교회는 역사의 무대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회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해답을 내놓진 않습니다. 현세 사물(事物)의 정당한 자율성을 존중하는데, 이 모두를 이끌어가는 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事)는 정치·경제·문화·외교 영역에서의 인간(사회) 활동이고, 물(物)은 과학 및 기술 분야의 인간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물’이라 하면, 이는 이성의 활동 전체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현세 사물의 진리에 신앙의 빛을 비추고 정직한 대화와 사회적 가르침을 통해 인류가 직면한 현안을 해결하는 데 이바지함으로써, ‘인간 구원과 사회 쇄신’이라는 복음화 사명을 충실히 수행합니다(「기쁨과 희망」 3항; 36항; 43항 참조).

회칙의 “제3장 열린 세계를 구상하고 싹트게 하기”의 요지는,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이 오늘날 열린 세계를 구상하고 싹트게 하는 데 시급히 요청되는 태도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제3장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우리 자신을 넘어 나아가기 - 사랑의 고유한 가치 (88-94항)
- ② 언제나 더 열려 있는 사랑 - 누구나 통합하는 열린 사회, 보편적 사랑에 대한 부적절한 이해 (95-100항)
- ③ “패(牌)들”의 세계를 넘어서 - 자유, 평등, 형제애 (101-105항)
- ④ 사람들을 들어 높이는 보편적 사랑 (106-111항)
- ⑤ 도덕적 선을 들어 높이기 - 연대의 가치 (112-117항)
- ⑥ 재화의 사회적 역할을 재구상하기 - 국경이 없는 권리들, 모든 국가 국민의 권리들 (118-127항)

섬처럼 자족하여 고립된 존재로 살려는 이들의 ‘폐쇄된 세계’에는 죽음이 지배하지만, 긴밀한 유대 맺기와 친교(사회적 우애) 그리고 형제애를 실천하는 이들의 ‘열린 세계’에는 생명이 존재합니다(87항 참조).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결국 고발, 제안 그리고 문화적이며 사회적인 계획을 위한 헌신이 된다. 또한 그 사랑은 진정으로 선을 지닌 모든 사람을 고무(鼓舞)시켜 그들 나름의 공헌을 하게 하는 긍정적 활동을 자극한다”(「간추린 사회교리」 6항). 🌐

로댕이 빛은 사랑 이야기

이번 주에는 근육질의 매력에 진지한 표정으로 턱을 괴고 있는 <생각하는 사람>의 조각가를 만납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활동한 프랑스 낭만주의 조각의 거장 오귀스트 로댕(Auguste Rodin, 1840-1917)입니다. 그는 당시 유럽 미술계의 주류였던 신고전주의의 고상한 화풍에서 벗어나 역동적인 감정 표현에 충실했지요. 파리 미술학교의 명문인 에콜 데 보자르에 세 번이나 낙방한 아픔이 있는데, 동시대의 보수적인 관점으로는 그의 표현이 너무 과감했던 것이지요.

로댕이 조각에 입문하게 된 건 이탈리아 여행 중, 르네상스의 거장인 미켈란젤로(1475-1564)의 작품에 감명을 받은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제자이자 미모의 조각가 카미유 클로델과의 격정적인 사랑 이야기 또한 유명하지요. 작품 <신의 손>은 힘세 보이는 손이 흙덩이를 쥐고 있는데, 그 안에는 방금 흙으로 빚어 만든 최초의 남녀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거대한 사랑’이란 손 안에서 ‘인간의 사랑’이 꽃 피어나는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어느 영국 신사가 이 작품의 의미를 묻자, 로댕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신의 손입니다. 모든 것은 아름다운 조화로 하나를 이룹니다. 하느님은 당신이 창조한 빛을 투영하고 어둠을 담아내기 위해 자연을 창조했습니다. 안개 속 혼돈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작업은 분명 조각가의 손을 요구하고, 그가 진흙을 빚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해낸 것입니다.” 여기 최초의 남녀를 빚는 하느님의 손은 로댕 자신의 손이기도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랬듯이 “조각가는 원석에 숨어있는 형상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평범한 인간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에 드러납니다. 조각가의 창조행위는 하느님을 닮아, 단순한 모방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독창적인 표현과 정신을 담아 새로운 형태의 창



오귀스트 로댕, <신의 손>, 1897년, 대리석, 94x82x55cm, 파리 로댕미술관

조를 만들어냅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아름다움을 지향했던 독실한 신앙인 로댕은 자신의 한계와 분수를 알고 있어 당당하되 겸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극한 겸손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진실(眞)된 아름다움(美)을 향한 갈망은 결국 선함(善), 곧 ‘사랑’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종교와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인간의 생각은 자연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리고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며 제한되어야 한다. ... 이러한 조형 원칙에 따라 만들어지지 않은 형상에는 진실이 결핍되고, 따라서 표현성도 부족하다. 형상과 현실 사이에는 메우기 힘든 간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단순히 영감에만 의존해 만들어진 작품은 제아무리 유연하고 섬세하다 하더라도 약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오로지 자연으로부터만 창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은 예술가를 - 일단 그가 자연을 이해하고 번역했을 때 - 창조자로, 아니 자신의 거룩한 모방자로 만든다.” 그렇습니다. 예술의 자유로운 날개를 멋지고 힘차게 펼친 로댕은 ‘자유’ 역시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랑’ 역시 하느님 손 안에 있습니다. 🍷

미사 · 피정 ▶▶

청주 초정성령회관 치유피정

일시: 6/7(금) 18시 ~ 8(토) 17시
※ 6/29(토)~30(주일) 치유피정
강사: 김완식, 이란, 황인숙
진행: 고영민 안드레아(음악부)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삼성산 피정의 집 성모 신심 세미나

일시: 6/1~7/27, 매주(토) 13시~17:30 [7주간]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회비: 무료 (중식 제공)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집 피정

개방의날 무료피정: 6/7, 매월 첫(금) 10시~15:30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시
대침목피정: 6/21(금)~23(주일)
다네이영성수련피정: 8/22(목)~25(주일)
문의: 02-990-1004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집

가정선교회 6월 피정 및 미사

토요피정과 성모신심 첫토요 미사: 6/1(토) 12:30~17시
하성용 신부, 김경희 수녀
성가정 영성 피정: 6/5(수) 12:30~17시
서정혁 신부, 이요셉 소장
예수성심성월 치유·회복을 위한 찬양 1일 대피정 :
6/15(토) 10시~17:30 김재덕 신부, 이현주 회장
찬양: 고영민 부회장, 손현희 팀장
장소: 가톨릭회관 3층 강당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예수회 영신수련 침묵피정

4박 5일: 7/17(수)~21(주일), 7/26(금)~30(화)
장소: 예수회 센터
문의: 02-3276-7794, ciskorprov@gmail.com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 피정 - 원주교구

6/14(금)~16(주일) 강한수 신부 (의정부교구)
7/19(금)~21(주일) 안소근 수녀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8/16(금)~18(주일) 조규만 주교 (원주교구)
9/20(금)~22(주일) 남궁민 신부 (원주교구)
문의: 043-651-4563 기도학교 사무실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십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 (연중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제주성지순례: 6/16(주일)~19(수)
우도해변포함: 7/12(금)~14(주일)
7/20(토)~22(월), 7/25(목)~28(주일)
8/1(목)~4(주일), 8/6(화)~8(목)
문의: 064-796-4182, 02-773-1455

향심기도 소개 강의

일시: 6/5부터 매주(수) 14시~15:30 [4주간]
장소: 영성센터 A313호(구. 계성여고)
대상: 누구나 / 지도: 이승구 신부
회비: 1만원 / 문의: 010-4565-8898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30~16시
장소: 명동 가톨릭회관 7층 / 담당: 김종국 신부
강사: 5/28 이상기 가브리엘 회장
문의: 010-5514-4077 회장

지혜의 샘 6월 피정 프로그램

예수 성심 성월 피정: 6/5(수)
강사: 박현민 신부, 이용권 신부, 한영임 회장
일일 치유 피정: 6/12(수)
강사: 마진우 신부, 김재덕 신부, 한영임 회장
내적 치유 피정: 6/17(월)
강사: 표중관 신부, 한영임 회장
장소: 부천시 경인로 61-1
문의: 010-3248-9705 지혜의샘

2024 한마음 청소년 힐링 음악캠프

일시: 8/5(월)~7(수), 8/7(수)~9(금) 15시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동
대상: 청소년부(중고등부)
접수: 5/31까지 [선착순 80명]
회비: 23만원
문의: 010-5399-7626 권성일 미카엘
031-840-0018 한마음청소년수련원

낙태 후 화해 피정 - 착한목자수녀회

날짜: 6/7(금)~9(주일) [회비 없음]
장소: 성 안드레아 피정의 집 (인천)
문의: 010-6637-1366 변 바울라 수녀

교육 · 모집 ▶▶

서강대 신학대학원 2024후기(주간) 신입생 모집

석사: 신학, 철학(철학/철학상담), 사회복지학
(사회복지/복지상담), 가톨릭사회복지학,
영성철학상담
박사: 신학(교의·조직/영성), 가톨릭사회
원서접수: 5/27(월)~6/7(금), 전형: 6/22(토)
문의: 02-705-8668, gsot.sogang.ac.kr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여름캠프 보조지도자 모집

업무: 어린이신앙캠프 보조 진행
문의: 031-840-0018 활동운영팀
※ 자세한 사항은 hanmaum84.com 참조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국내 입양 상담: 02-764-4741~3
www.holyfca.or.kr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띠나 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산(토) 18시
문의: 010-9842-8818

작가와 함께 그리는 평화

1차 평화교육
- 6/13(서울), 27(중), 7/11(중) 19시~21시
2차 제주캠프 - 7/22~25(제주)
진행: 손서정(가톨릭대학교), 요요진(작가),
한성훈(연세대학교)
대상: 만16세~25세
인원: 1차 30명, 2차 12명 (1차 교육 이수자에 한함)
회비: 무료 (단, 항공료는 각자 부담)
문의: 010-3884-0951, www.stfpc.org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사목자·활성가 양성연수(CAFE) 개최

날짜: 6/10(월)~12(수)
장소: 복자사랑 피정의 집
주제: 사목 팀 양성
대상: 사제, 수도자, 평신도
접수: 선착순 40명 / 25만원
문의: 02-744-0840 햇살사목센터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성 베네딕도회 왜관 수도원	6/8(토) 14시 ~ 9(주일) 13시	수도원 본원 (경북 왜관)	010-8353-2323 (문자 문의)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수도 생활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10-5195-3217

2024 어머니·아버지학교 온라인(Zoom)교육

일시: 6/28~7/19, 매주(금) 19:30~21:30 [4주]
주제: 자녀에게 신앙 이어주기
강사: 조재연 신부, 이세라, 천진아
접수: 6/23까지 / 회비: 4만원
주관: 한국천주교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햇살사목센터
문의: 02-744-0840

안내 · 기타 ▶▶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치료(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월~금 (09시~17시)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미래사목연구소 제10차 학술 발표회

일시: 6/1(토) 13:30
장소: 인천교구청 이안나홀
주제: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본당 공동체
문의: 031-986-7141 미래사목연구소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8/13(화)~24(토) 스페인남부, 파티마, 루르드 (485만원)
8/26(월)~9/6(금) 튀르키예, 그리스 (485만원)
9/2(월)~13(금) 발틱3국, 폴란드 (490만원)
문의: 02-2281-9070 가톨릭신문투어

제19회 가톨릭 환경상 공모

대상: 재생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탄소 중립 활동에
기여한 개인 혹은 단체
접수: 6/3(월)~7/19(금)
문의: 02-460-7622, cbckcee@cbck.kr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8/19 유럽 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 (12일, 485만원)
9/16 튀르키예, 그리스 (10일, 409만원)
(동반자 100만원 할인)
9/23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독일 (12일, 585만원)
9/24 이탈리아 일주 (11일, 545만원)
(동반자 50만원 할인)
10/21 산티아고 107km 도보 순례 (12일, 475만원)
11/21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순례 (10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북해도, 도쿄, 교토
3박 4일, 120만원 / 문의: 010-3645-9028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8/6(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45만원)
9/26(목) 조지아, 아르메니아(초기교회) (10일, 440만원)
10/9 터키, 그리스 (12일, 470만원)
10/22(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11/4(월) 알프스 수도원 및 성모성지 (12일, 53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가톨릭 여성 심리 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 상담
시간: 10시~16시(월~금) / 문의: 02-990-9366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하늘의문 성당 2024년 하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 60년 (30년, 추가30년 가능)
봉헌금: 400만원, 500만원
접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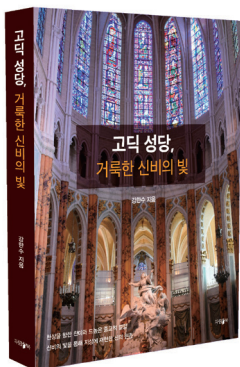
라파엘 가을특선 성지순례안내

9/11(수) 추석 특선 출발 (10일간)
알프스와 중세 수도원 (545만원)
이탈리아 (535만원) / 스페인, 포르투갈 (535만원)
9/16(월), 10/6(주일), 10/20(주일) 출발
튀르키예, 그리스 (409만원)→동반자 100만원 할인
10/13(주일) 성모님 발현지 (485만원)
10/21(월) 나가사키 (139만원)
10/22(화) 이탈리아 (520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여행사

제24회 평화방송 여름방학 영어캠프

미국: 국내 유일 미국 최고 명문 UCLA 영어캠프
(디즈니랜드, 실리콘밸리 탐방)
영국: 국내 유일 옥스퍼드 영어캠프
(손흥민 토트넘, 서유럽투어)
사이판: 가톨릭국제학교 정규수업과 현지 투어
문의: 02-734-0999, www.pbccamp.com

도/서/소/개



고딕 성당, 거룩한 신비의 빛

강한수 | 256면 | 22,000원 | 파람북
문의 | 02-2038-2633

천상의 빛을 향한 찬미와 드높은 종교적 열망, 신비의 빛을 통해 지상에 재현한 하느님의 현존

흔히 중세를 문화의 암흑기라 말하지만, 고딕 성당을 염두에 두면 그 말에 의문을 품지 않을 수밖에 없다. 중세에 발아하고 꽃을 피운 고딕 성당이야말로 서양문명사 전체를 통틀어 가장 역동적이고 위대한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고딕 성당이 당대의 종교, 역사, 철학, 예술 등 모든 문화의 집결체이며 상징적 공간이라고 한다면, 중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고딕 양식과 스킨라 철학은 동시성과 유사성을 갖고 있다. 당시 스킨라 학파는 인식의 '명료함'을 추구했다. 심지어 하느님의 존재도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고 여겼으며, 그분의 현존을 빛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다. 당연히 성당은 빛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고, 이를 위해 건축의 수직성과 벽체의 경량화, 크고 넓은 창문을 확보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본격적인 의미에서 스테인드글라스가 출현하게 된 것이다.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이번 주간 5월 29일은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입니다. 2014년 8월 16일,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동료 순교자의 시복 미사를 집전하셨습니다. 그로부터 30년 전인 1984년 5월 6일, 이미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103위 성인의 시성식을 여의도 광장에서 거행하신 바 있지요. 그런데 그때 시성되신 103위 성인은 모두 기해박해(1839년), 병오박해(1846년), 병인박해(1866년)의 순교자들이고, 그보다 앞선 시기의 순교자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천주교회는 신유박해(1801년) 200주년이던 2001년에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의 초기 순교자들, 곧 신해박해(1791년), 을묘박해(1795년), 정사박해(1797년), 신유박해(1801년), 1814년, 을해박해(1815년), 1819년, 정해박해(1827년)의 순교자들을 포함하고, 기해박해(1839년), 병인박해(1866년), 무진박해(1868년), 1888년의 순교자들을 추가하여 124위의 시복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복 조사를 위한 법정은 2004년 7월 5일부터 2009년 5월 20일까지 열렸습니다. 그리고 5월 28일, 윤지충 바오로와 123위 동료 순교자 시복 청원서가 교황청 시성성(현 시성부)에 접수되면서 '하느님의 중'이 되었습니다. 해당 안건은 2013년에 교황청 시성성 역사 위원회와 신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2014년 2월 4일에 교황청 시성성 추기경과 주교단의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흘 뒤인 2월 7일,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시복 결정에 관한 교령 발표를 허락함으로써 하느님의 중 124위의 시복이 결정되었습니다.



김형주 이멜다, <새벽빛을 여는 사람들>, 2014년, 300×200cm

103위 순교성인의 경우, 모두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시복식이 거행된 것에 비해, 124위 복자의 시복식은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거행되었습니다. 특별히 광화문 주변은 이 땅의 신앙 선조들이 박해를 겪고 순교한 형조, 좌·우 포도청, 의금부 등이 자리하던 곳이라 그 의미를 더합니다. 복자 윤지충과 동료 순교자들 기념일을 맞이하며 우리 민족의 평화와 복음화를 전구해 주십사 청하도록 합시다. ☸